

기업 공적자금 횡령에

사찰 연루 혐의

성원토건 김 前회장 재산은닉 도와

성원토건 김성필 전 회장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화산돈 47억 원을 횡령하는데 경남 ㄹ사찰 ㄹ 스님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이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월 28일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발표에 따르면, 성원토건 김 전 회장은 98년부터 ㄹ사찰의 사찰등록증과 주지 스님의 위인장 등을 도용해 47억 5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김 전 회장은 사찰 명의 계좌 30개를 만들어 2억 원씩 나눠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세탁을 했으며, 이듬해 성원토건의 부도가 예상되자 돈세탁한 금액을 사찰의 시중돈으로 가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ㄹ 스님은 사찰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20여 원대의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직접적으로 성원토건의 돈 세탁을 직접적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ㄹ 스님은 김 전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2000년 12월 서울 성북동 소재의 호화저택 2채와 집터 등 204억원에 이

르는 부동산을 사찰명의로 이전해 김 전 회장의 재산 은닉을 돕고, 전 회장의 250억 규모 버스터미널과 80억 규모의 주차장 등 총 3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은닉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여기에는 다른 사찰의 스님들도 다수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김 전 회장의 은신처는 여섯대의 무인감시 카메라가 작동되는 대지 103평의 서울 성북동 소재 고급주택으로서 천평이 넘는 지하실엔 헬스클럽을 겸한 실내골프연습장이 조성돼 있고, 창고에는 유명디자인어 옷 수백벌과 이탈리아 제 수제구두 및 그림 수십점이 빼곡히 차 있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한신공영 김태형 전 회장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ㄹ 스님은 이를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김은경 기자

불교계 인사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수행자로서 해선 안될 일

혜승 스님(해인원월장)
울장의 논서인 <선견율비바사>에는 음녀의 공양을 받아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쟁하는 대목이 나온다. 결론은 이것을 사용하는 비구의 과정과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자가 부정한 돈을 받아 돈세탁을 대신해주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일을 벌였다는 것은 수행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과정이 어떠한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개인 일로 중단전체 비난 말길

효림 스님(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이번 사건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문체 삼는 가운데 벌어진 일 같다. 해당 스님이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면이 있지만 불교계가 먼저 나서서 스님을 비난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스님 개인 권으로 중단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철안 스님(남양주 봉선사 주지)
문제가 된 시주금이 공적자금인 줄 알면서도

숨기는 차원에서 일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모르고 한 일이라면 정상 참작을 해야 할 것이다. 사찰이 비영리단체이고 스님이 인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했을 가능성도 많을 것이다. 이 일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여론을 들어보고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절대 용납해선 안될 관행

백창기 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
사찰과 스님이 기업주의 불법 공적자금 횡령을 도왔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성원토건 사건의 경우 횡령 액수가 커서 부각되고 있을 뿐, 사실상 불교계에는 스님들의 관행으로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사찰과 스님들의 부도덕한 일의 견제기관으로서 각 사찰 신도회가 활발히 활동해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정함 보시' 여야

김희옥 원장(교단자정센터)
성원토건 김성필 사장이 지역 불교계 발전에 공헌한 바가 많다는 것은 많은 불자들이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교계에 큰 짐이 됐다는 현실에 아쉬움이 크다. 이번 사건으로 보시의 청정함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많이 받았으면 그만이다라는 불교계의 관행을 고쳐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청년 불심에 불 지피자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회장 강지혜)가 각 지부 및 지회별 사업내용 공유와 협력방안을 찾기 위한 '2004 대불련 전진대회'를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김포 효원선수원에서 개최했다. (사진)

대불련 전진대회 개최

중앙·지부·지회 협력 다짐



대불련 24개 지부 177개 지회장 및 중앙입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중앙 및 지부의 사업보고와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 포교원과 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불련 회원들과 포교원 실무자와의 간담회 자리를 처음 마련된 것으로, 대불련 특색화 프로그램 개발 및 대불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포교원 측이 제시한 '대불련 포교원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대불련 조직 실태조사 및 지도법사단 구성 등의 일부 안에 대해 대불련 입원 및 회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다고, 포교원의 대학생 포교원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불련 총지연 지도위원은 "불교학생회의 현황 파악과 지도법사단 구성보다 대불련 조직을 바로 세우고 각 지부 및 지회들이 실행활동을 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JTS 北에 1년내 20억원 투자

개발기금 조성...통일대비 모델 사업 지원키로

JTS가 북한 개발을 위한 기금을 만든다.

한국 JTS(대표 유수)는 5월 31일 장수 주립정사에서 열린 정보행정차관 9차 백일기도 입재식에서 '북한개발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해 북한 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한다. '북한개발기금'은 북한의 보건 의료 교통 사회 기초 인프라 시설 건설을 물론 문화재 복구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JTS는 1차 3년 라선시, 2차 3년 함경북도, 3차 3년 북한 전역 순으로 북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2005년 5월까지 라선시에 20억원을 투자해 보건 의료 등 기초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JTS는 산하에 '북한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당한 구체적인 현물지원과 향후 인적 교류, 기술교류를 대비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도심 속 재가불자 수행열풍

백일법문 논강, 각계 인사 150여명 참가

"성철 큰스님의 <백일법문>의 핵심은 중도(中道)입니다. 중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 다 중도고, 선 또한 중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6월 3일 조계사 극락전에서는 사찰 신도회 임원, 단체장, 정부부처 실무자, 언론인, 교수 등 사회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하고 있는 재가불자 150여명이 모여 성철 큰스님의 이론과 사상을 집중 조망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스님들의 전통 수행기간인 하얀거름 맞아 재가불자들의 도심 속 백일의 핵심인 중도를 깨우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성철 큰스님의 상좌인 파라마리타청 소년협회 회장 원택 스님의 특강과 경북 봉화군 각화사 고우 스님의 법문,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증명법사로 나선 고우 스님은 '생활인의 마음 공부법'이라는 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이론이 아닌 생활"이라며 "불교의 가장자리만 맴돌 것이 아니라, 중도를 가장 쉽고 명확히 설명한 <백일법문>을 공부하며 불교의 핵심인 중도를 깨우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보통에 한번씩 진행되는 <백일법문> 재가논강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02)737-7277

김은경 기자

조계종, 시민단체 지원 확정

'한끼밥상 나누기 운동' 등 7개 사업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위원장 미산)는 5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불자 미디어 교육 등 7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날 선정된 프로그램은 ▲불자사회 네트워크 구성과 구성 사업(조계종 중앙신도회) ▲좋은 이웃 한끼밥상 나누기 운동(좋은벗들) ▲불교생

태 계열학교(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어린이불자 대상 미디어교육(보리방 송모니터회) ▲유엔본부에 NGO 활동 연계 및 홍보활동(뉴유사 원연합회) ▲사찰 상담복지 실현을 위한 '사찰 상담실 설치운영 매뉴얼' 발간(불교상담개발원)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파라마리타청소년협회 수원지부) 등이다. 강유신 기자

'산사 특징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스님과 실무자 20여명은 6월 4일 불교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템플스테이 사업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법인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산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관광부 김수연 총무관은 "템플스테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템플스테이 사업단은 다음달 템플스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하는 등 운영 사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

윤기진·황선 씨 선정

박종철인권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청화)는 6월 1일 윤기진, 황선 부부를 제2회 수상자로 결정했다. 윤기진 씨는 현재 범청년 남측본부의 장을 맡고 있다. 윤 씨의 부인 황선 씨는 현재는 범청년 남측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다. 강유신 기자

통영 불교 방생법회

9일, 치어 7만여 마리

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9일 도남관광지와 연화도 해상에서 '2004 통영불교 방생법회'를 개최한다.

하동 황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비롯,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스님 및 신도 3천여 명이 참석 예정인 방생법회에서는 7만여 마리의 양식 치어를 통영 앞바다에 방생할 계획이다. 도남관광지에서 열리는 식전 행사에서는 어산작법과 풍어기원 수륙대제가 열리고 유람선을 이용 육지 연화도 앞 오후 해상선상 법회가 봉행된다. 천미희 기자

"호국영령이여 고이 잠드소서"

13일 원광사 등 전국 군법당서 천도법회

조계종 군불교위원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3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영령 청혼 및 이운으로 시작되는 천도법회는 전몰장병 위패를 선두로 국악대와 원광사 합창단, 신도대표들이 원광사까지 행진하며, 원광사에서 천도독경, 축원 등으로 진행된다. 박병영 기자

이번 법회에는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기무사령부, 특전사령부, 수도권 등 재경지역 군법당 소속 군법사와 군불자, 일반신도 등 1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도법회는 전국 4백여 군법당에서 부대실정에 맞게 동시에 열린다.

한편 군불교위원회는 6월 22일 오후 1시 국방회관 태극홀에서 군불교 호국합창제를 개최한다.

2004년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안내



가야산 해인사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 21회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고려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로서 불교문화와 수행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는 총림(叢林/종합수도원)으로서 조계종 중정 법전 대종사를 중심으로 25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 최대의 수행도량입니다.

해인사의 수련회 일정은 참선과 묵언 등 엄격하고 신실한 내용으로 스님들과 똑 같은 수행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4박5일의 기간을 통해 단기간에 경건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인사의 새벽 예불은 타성에 젖은 수련생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잔잔한 감동이 될 것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을 아래의 일정과 절차로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수련주제: "가장 화려한 날은 바로 오늘이다."

■ 여름 수련회 일정

차수	기간	대상자	인원
1차	7월 6일(화)~7월10일(토)	20~60세 이하	일반인 130
2차	7월13일(화)~7월17일(토)	"	" 130
3차	7월20일(화)~7월24일(토)	"	" 130
4차	7월27일(화)~7월31일(토)	"	" 130
5차	8월 3일(화)~8월 5일(목)	14~19세 이하	중·고등부 150
6차	8월10일(화)~8월14일(토)	20~60세 이하	일반인 130
7차	8월17일(화)~8월21일(토)	"	" 130

■ 접수기간: 2004년 5월24일부터 선착순 마감

■ 신청서 양식은 해인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및 팩스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하실 때는 전송 후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 참가비: 일반부 8만원, 중·고등부 6만원(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포함)

■ 접수방법 및 통보: 선착순 접수에 의해 마감하며, 참가비 입금이 확인되면 수련생으로 정식등록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차수 변경은 3일전까지만 가능하며, 불참하더라도 입금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 수련회 참가비는 아래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능 협: 843174-51-006770 (예금주: 해인사)

* 입금하실 때는 자신이 원하는 차수를 이름 뒤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하얀 고무신, 하얀 양말, 쌀 1되와 상·하법복이 있는 분은 가져올 것

■ 접수안내: 055-934-3110(포교국) 팩스 055-934-3112

* 자세한 것은 해인사 홈페이지(www.haeinsa.or.kr)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